

전남 소방본부, 장흥군으로 이전 확정



전남도 소방본부가 장흥군에 새 동지를 둔다. 장흥군은 현재 전남도청에 위치한 전남소방본부를 비롯해 6개 핵심 기능이 장흥군에 통합 재배치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재배치되는 6개 기능 통합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종합상황실), 소방교육대, 특수구조대,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서, 안전센터 등 체계적인 소방안전 클러스터로 구성된다.

이번 전남 소방본부 청사 이전에는 총 사업비 16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4월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9년 말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소방본부가 장흥군에 이전되면 상황 발생 1시간 이내에 전남 모든 권역에 대한 육상 대응이 가능해진다.

전남 소방본부는 그동안 긴급신고전화 통합(1339, 122)에 따른 업무폭주, 정보통신시스템 설치 운영 공간부족, 작전 및 영상회의실 설치

6개 핵심 기능 통합 재배치로 소방 클러스터화 상황 발생시 도내 모든 권역 1시간 내 대응 가능 근무인원 등 유입인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를 위한 119종합상황실 협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장흥군은 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해 행정목적으로 매입한 옛 장흥교도소 부지 중 약 3만8천㎡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군 관리계획 변경 등 청사 신축에 필요한 제반 요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 소방본부가 이전을 마치게 되면 전남소방학교와 특수구조대와 함께 주요 소방지원의 집중화를 통해 교육훈련과 출동지원, 조직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군은 올해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새롭게 문을 연 전남소방교육대를 시작으로 통합 소방본부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전남 중부권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과 동·중·서부의 균형 발

전을 들어, 통합 소방본부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전남도도 동·서부 간 재난현장 신속대응의 지리적 장점과 균형 있는 행정부지를 이유로 통합 소방본부의 장흥 이진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흥군은 통합 소방본부가 들어서게 되면 200여명에 달하는 근무인원은 물론 연간 1만4천명의 소방관계자의 기관 방문까지 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통합 소방 컨트롤 타워가 전남도의 지리적 중심인 장흥으로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청사 건축과 운영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김종민 기자



완도군, 전복거리 조성한다

바다농장~제일마트 구간 10억원 사업비 내년 3월 완공

청정바다 수도, 전복의 고장 완도에 전복을 상징화하여 독창적인 테마거리로 전복거리를 조성한다.

'완도 전복거리'는 지난해 전라남도 바다음식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선정되어 10억여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 착공해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다.

바다음식거리는 100m 이상 되는 거리 내에 단일음식을 취급하는 업소가 6개소 이상인 지역을 기본요건으로 한다.

전복거리로 조성되는 바다농장에서 제일마트 구간에는 전복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거리 이미지에 어울리는 진·출입부 간판과 상가 디자인 간판, 도로 포장장비, 휴게시설, 쾌적한 가로경관 등이 조성된다.

또 인도로 조성되는 구간에는 전복과 해조류의 설화나 효능을 담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읽

는 재미를 곁들였으며, 아간에는 바다 점 조명을 설치해 별빛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만들 계획이다.

실제 전복모양의 포토존은 바다 풍경과 어우러져 사진촬영 명소가 되도록 즐거운 거리! 맛있는거리! 소통의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앞서 군은 전복거리 조성과 관련해 전복거리 내 5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관광객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서민형 전복음식을 개발 보급했고, 전복코스요리 상차림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전복거리가 조성되면 전복소비 촉진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가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여수시,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13개 시범설치

여수시가 시민들이 따뜻하게 시내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승강장에 발열의자를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버스 대기인원이 많은 여수엑스포역, 여수종합버스터미널, 쌍봉사거리, 신기부영단지아파트, 전남관, 신미당, 중앙쇼핑 승강장 등 7곳이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해당 승강장에 발열의자 13개를 시범 설치한 후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확대할 방침이다.

발열의자는 탄소섬유를 소재로 하며, 내부에 열선이 있어 전원이 공급되면 35~38℃로 따뜻해진다. 열선은 온도센서에 의해 외부온도가 15℃ 이하일 경우에만 작동한다.

탄소섬유는 다른 소재들에 비해 열전도율이 높고 감전위험도 낮다. 또 일반 금속선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보다 전기요금을 25%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 임신부와 노약자 등이 따뜻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열의자를 설치하게 됐다"며 추진배경을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 남악~서울 간 고속버스 운행 시작

1일 왕복 4회 운행...4시간 30분 소요



지난 1일 무안군 남악신도시에서 남악~서울 간 고속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까지 4시간 30분이 소요되며 1일 왕복 4회 운행된다.

무안군은 이날 남악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고속버스 운행 개통식을 개최해 남악 주민들과 함께 고속버스 운행을 축하했다.

개통식에는 박준수 군수 권한대행, 이동진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금호고속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과 승객들에게 꽃다발은 전달하는 축하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개통식에 맞춰 남악 시외버스 정류소도 개소했다. 정류소

에는 매표소, 승객대기실, 승차권 자동발권기, 냉·난방기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동안 남악 주민, 전남도청 공직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외버스터미널 또는 목포역을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전남도청 앞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시외버스가 7개 노선에 1일 59회나 운행하고 있음에도 승객대기실이 없고 승차권을 인근 상가에서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시외버스 정류소 개소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남악신도시가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정류소 개소와 서울 노선 운행으로 편의성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 지주식 김 양식',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완도의 지주식 김 양식 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을 제5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해수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 유·무형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해오고 있다. 2015년 제주 해녀어업과 보성 신안 천일염업에 이어, 올해는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을 선정했다.

지주식 김 양식어업이란 갯벌에 지주목을 세우고 발을 설치해 김을 기르는 방식으로 썰물 때 물이 빠지는 갯벌의 특성상 다른 방식으로 양식하는 김보다 일조량 확보가 쉽다. 예로부터 완도에서 많이 이뤄졌던 '설 양식'에서 발전했으며, 1922

년 전담 조합인 '완도 해태어업조합'이 설립돼 지주식 김 양식어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설 양식은 갯벌이나 얇은 바다에 대나무를 여러대 세워놓고 그곳에 붙여 지란 매생이, 김 등의 해초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1600년대 완도 고급도를 중심으로 성행했다.

지주식 양식은 일반적인 '부류식 양식'보다 김을 기르는데 시간과 노력이 더 드나. 김의 맛과 향 색깔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완도 지역 3개 마을의 24개 어가에서 전통 방식을 계승해 지주식 김 양식을 하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어업유산지정서가 발급되고 향후 3년간 전통자원 복원과 정비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완도=김광수 기자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산양삼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